

# 1991 세계농약시장 현황과 1992 전망

## 1991년 현황

91년의 세계농약시장은 수치상 90년 대비 1.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환율과 인플레이션을 고려해보면 실제 농약시장은 2%가 감소된 26,800백만\$로 나타났다.

전세계적으로 주요 식량작물과 면화의 재배면적이 90년대에는 6.4% 증가된 반면 91년은 0.3% 감소되었다. 곡물의 재배면적은 0.6%, 밀은 3.7%, 쌀은 0.9%가 각각 감소되었다.

재배면적도 감소되었지만 기후와 경제적 영향 등으로 곡물의 수확은 더욱더 감소되었다. 미국의 밀 생산이 28% 감소되었고, 90년 기록적인 생산을 보인 소련의 밀도 91년에는 실패함으로써 세계의 밀 생산량은 8%나 감소되었다.

쌀의 생산량은 1.7% 감소된 반면 면화와 콩의 생산량은 각각 5.5%, 2.0% 증가되었다.

통일독일은 서독과 동독의 분단 시절 보다 농약판매는 13% 증가되었다. 구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지역은 원조와 구매체제가 붕괴된 탓으로 민주화 이후 농약시장이 순탄하지 못했다.

서유럽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들은 EC의 공동농업정책과 GATT의 회담결과에 기인한 농민들의 농업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탓이다.

90~91년 혹독하고 건조한 겨울을 보낸 탓에 병해충 발생이 낮아져 수도용 살균제의 수요가 줄어들었다. 지구의 북쪽지역에서는 습한 봄기후가 제초제의 사용을 감소시킨 반면 그해의 늦가뭄은 가을의 살포시기를 지연시켰다. 남쪽지역 역시 가뭄 때문에 농약

시장은 계약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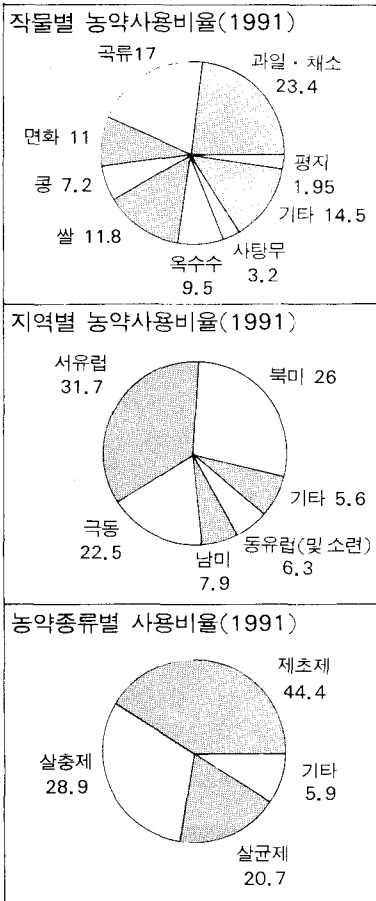
2년간 10% 이상의 증가추세를 보여온 프랑스는 91년 농약판매가 감소되었다. 스페인과 이태리는 미미한 증가를 보였고 영국은 상당한 수준의 증가를 보였다. 남미

의 경제적 문제들은 농업경제에 영향을 끼쳐 단위면적당 농자재 투입량을 감소시켰다. 브라질의 농약시장은 감소된 반면 아르헨티나는 농산물 수출통제의 해제를 기반으로 농약시장이 성장세를 보였다.

극동지역의 일본은 쌀의 재배면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태풍의 영향을 자주 받기 때문에 농약시장 역시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호주는 가뭄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

반면 신흥공업지역인 동남아시아지역의 농약시장은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다.

농약제품은 가격경쟁이 치열하며 원재의 판매는 기후조건에 여러모로 영향을 받는다. 모든 농약의 판매가 증가하는 경향에 있고 특히 제초제는 시장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다. 살균제는 수도작에서 사용이 줄어들어 가장 낮은 증가를 보였다.



## 1992년 전망

서유럽은 공통농업정책과 GATT 협상 때문에 농약시장은 전반적으로 정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민의 확신과 경제상황이 안정되지 않

는 한 팔목할만한 농약판매 증가는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91년 흉작이후 지구의 식량작물 재배면적은 증가를 보일것이고 미국의 농약시장은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규모가 작은 나라의 농약시장은 다소 성장이 예상되지만 일본과 호주가 극동지역의 농약시장을 대부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농약시장은 쇠퇴할 전망이다.

92년도는 특히 무역을 중심으로 지구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91년도와 같은 세계농약시장의 실질적인 감소는 92년에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92년 농약시장은 1% 이상 증가하지는 않을 것 같다.

자	1992 Annual Review
료	영국농약협회(BAA)

## 해외농약뉴스

### 스미토모 스페인회사 인수

#### 유럽시장 확장위한 발걸음

日本の 스미토모化學은 유럽의 농약시장 확장을 위해 스페인의 농약회사인 KenoGard SA를 인수했다. KenoGard SA는 스페인 시장에 대해 농약의 개발과 판매를 맡았었는데, 주로 지중해 연안지역의 과수, 채소용 농약과 가정원예용 제품을 취급해왔다.

이번 스미토모의 스페인 회사 합병은 90년에 프랑스가 스페인에 支社를 설립하고 금년초 독일이

支社를 설립한데 이어 日本의 스미토모가 유럽시장 확장의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 몬산토와 Glyphosate 경쟁

#### 日本農藥지사 ACM

日本農藥(株)의 말레이시아 支社인 Agricultural Chemicals (ACM)는 ICI의 비선택성 제초제 Acemax(glyphosate-trimesium)을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직접 생산, 판매할 계획이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말레이시아에서 특허기간이